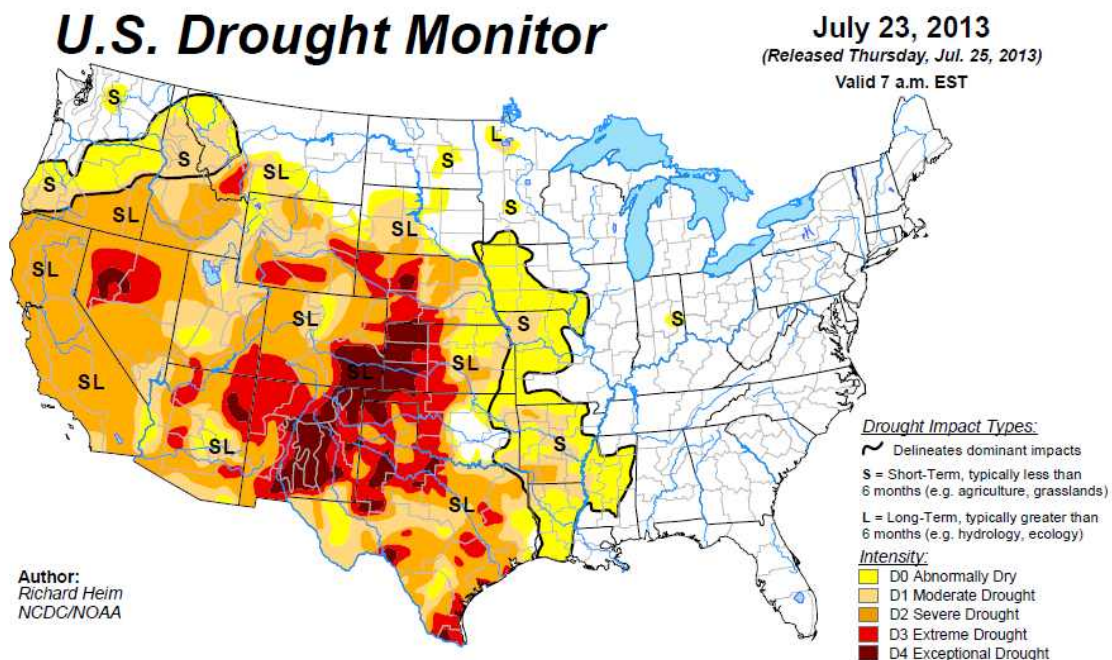




※ 7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31)

□ 미국 기후 현황(7/21~7/27)



콘벨트서부의 기후가 지난 4~6주 동안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Texas역시 지난주에는 상당량의 비가 내렸으나 금주에 건조기후가 재개되어 작물의 스트레스가 커졌다. 한편 미국 동부 대부분 지역 및 Kansas, Oklahoma에는 호우가 내렸다. 대평원 남동부 및 애팔래치아산맥 남부에는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렸고 이 비는 특히 중서부와 중남부지역의 생식성장 및 등숙단계 옥수수와 대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편 7월 강수량이 기록적으로 많았던 미국 남동부는 금주 내린 비로 인해 작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국 남서부는 국지적 장마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북서부는 고온건조한 기후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겨울밀의 성숙 및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 북서부의 주간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5°F 높았으나 중서부 위쪽지역의 주간기온은 평년보다 최저 5°F 낮았다. 주중 대평원, 미 중서부, 중남부에는 냉기단이 자리잡아 기온이 생식성장 및 등숙단계 작물에게 유리한 수준이 되었다.

□ 주간 농업현황(7/22~7/28)

대평원은 기후가 평년보다 서늘했고 더 많은 강수량 4인치 이상의 뇌우가 내려 가뭄이 완화되었다. 반면 북서부는 고온건조하여 작물의 성숙 및 수확이 촉진되었다. 남서부에는 장마비가

내려 토양수분이 증가했으나 이 지역은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수수: 7월 28일 기준 71%가 출사(silking)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2%p, 5년 평균대비 4%p 느린 수준이다. 아이오와는 서늘하고 비가 내려 옥수수 생육발달과정에서 수분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계인 수분(pollination)단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오와의 일부지역은 총강수량이 불충분하여 작황이 저하되었다. 전국적으로 경립(dough)단계에 진입한 옥수수는 8%로, 전년 동기대비 27%p, 5년 평균대비 9%p 낮은 수준이다. 좋음/아주좋음 등급은 63%로 전주와 동일하나 전년 동기 대비 39%p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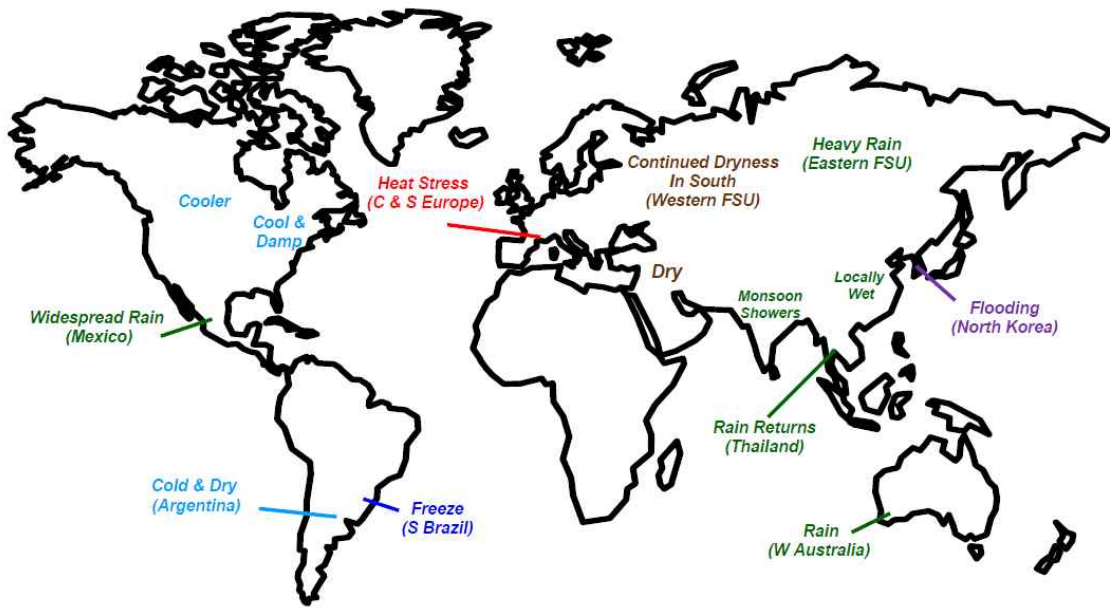
대두: 7월 28일 기준 65%가 개화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2%p, 5년 평균대비 9%p 느린 수준이다. 28일 기준 20%가 결협기(setting pods)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p, 5년 평균대비 14%p 느린 수준이다. 콘벨트 기후가 서늘하고 산발적 소나기가 내려 대두 작황이 좋아졌으나, 토양수분이 불충분한 지역에서는 관개작업이 진행되었다. 좋음/아주좋음 등급은 63%로 전주대비 1%p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34%p 높은 수준이다.

겨울밀: 7월 28일 기준 81%가 수확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p, 5년 평균대비 소폭 느린 수준이다. 수확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기후가 수확에 유리하여 주중 수확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봄밀: 7월 28일 기준 94%가 출수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p, 5년 평균대비 소폭 느린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수확이 진행 중이다. 좋음/아주좋음 등급은 68%로 전주와 동일하나 전년 동기대비 5%p 높은 수준이다.

쌀: 7월 28일 기준 36%가 출수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8%p, 5년 평균대비 7%p 느린 수준이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 수확이 진행 중이다. 좋음/아주좋음 등급은 69%로 전주대비 3%p, 전년 동기대비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7/21~7/27)



- 유럽: 중부 및 남부유럽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져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프랑스 중부 및 남부에서부터 독일 남부, 이탈리아 북부,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기온은 35~37℃였다. 북부유럽의 기온은 30~35℃였다. 그러나 그동안 건조했던 서부유럽은 한랭전선으로인해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렸다. 영국, 프랑스와 독일 북부지역에는 강수량 10-60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지난 두 달간 건조했던 영국 남부지역의 강수량은 10mm 미만이었다. 한랭전선이 이동한 이후 프랑스 남동부, 독일 서부, 이탈리아 북부는 기후가 서늘해졌던 반면, 발칸반도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 29일 40℃를 육박했다. 스페인은 계절적으로 고온건조하여 겨울밀의 수확작업이 가속화되었으나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에 대한 관개작업이 더 많이 요구되었다.
- 구소련(서부): 남부지역은 지속적으로 건조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3℃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식성장단계의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간 기후가 건조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남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반면에 서부 및 북부지역(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러시아 불가구역에 이르는 지역)은 광범위하게 소나기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 동아시아: 화북평원지대는 지속적으로 비(50-100mm)가 내려 Hebei와 Shandong의 토양이 침수되었다. 중국 북동부의 Heilongjiang에도 비(25-75mm)가 내려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 대두, 쌀 작황이 좋아졌다. 한편 지난주 많은 비가 내렸던 Jilin, Liaoning 및 인근 내몽골 지역은 금주 기후가 건조해져 토양수분이 작물의 생육발달에 적절한 수준이다. 지난 수주 동안 과도하게 많은 비가 내렸던 양쯔강 유역에서도 금주 기후가 건조해졌다. 한편 7월 5일 이후 강수량이 계속 부족했던 중국 남동부 Hunan은 금주에도 건조기후가 지속되어 쌀의 수분이 감소했다.
- 호주: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밀벨트에 계속 비가 내렸고 화창하며 온난하여 겨울밀의 작황이 좋아졌다.

- 아르헨티나: 기후가 건조하고 계절적이지 않게 한랭하여 발작업이 잘 진행되었으나 기온이 영하로 하락하여 겨울밀의 생육발달속도가 늦추어졌다. 중부지역(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지역, Santa Fe, Entre Rios)의 주간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4℃ 낮았고 북부지역은 평년보다 4~6℃ 낮았다. 주산지에서 수일 동안 기온이 영하로 하락했었고, 서부 및 북부(Cordoba에서 Jujuy 및 Formosa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낮 최저기온이 -5℃ 이하로 하락했었다. Buenos Aires 겨울밀 재배지역에는 약한 소나기(5~25mm)가 내렸으나 그 외 지역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7월 25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96%로 전년 동기의 94%에 비해 높다. 겨울밀 파종율은 85%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 브라질: 계절적이지 않은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하락했으므로 겨울밀이 국지적으로 냉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Mato Grosso 남서부에서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의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4~7℃ 낮은 수준이었고 북쪽으로 Parana 중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기온이 영하로 하락했었다. 브라질에서 겨울밀은 생육발달 단계이므로 냉해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rana 및 Santa Catarina, 그리고 Sao Paulo 남부지역에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강수량 25~100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건조기후가 지배적이어서 2기작 옥수수의 성숙 및 수확이 잘 진행되었다.
- 캐나다 평원: 기후가 계절적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서늘해져 봄밀의 생육발달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Saskatchewan과 Manitoba의 주간평균기온은 평년대비 3~4℃ 낮았다. 강수량은 5~50mm 수준으로 기온이 낮고 비도 내려 초가를 냉해의 위험이 있다. 한편 Alberta는 기온이 평년에 가까운 수준이고 강수량이 적어(25mm 미만) 작물의 생육발달에 유리한 기후이다.